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7호 【루계 제2601호】

주체109(2020)년 7월 4일 토요일 음력 5월 1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당면사업과 중요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7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내각, 성, 중앙기관 성원들, 도당위원장, 도인민위원장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건설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문제를 또다시 토의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악성비루스의 경내침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유지하고있는것은 당중앙의 선견지명적인 령도력과 당중앙의 명령지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체 인민의 고도의 자각적일치성이 쟁취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방역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부단히 공고화하여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주변나라들과 린접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추이가 지속되고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상방역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군들속에서 점차 만연되고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방역규률위반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고 서뿌른 방역조치의 완화는 상상할수도, 만회할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거듭 경고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형세가 좋다고 자만도취되여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류입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6개월간의 국가비상방역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상반년도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 발로된 문제점들을 비판적견지에서 심각히 분석총화하였으며 세계적인 피해상황에 대처하여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비상방역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과감히 극복하며 건축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완강히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지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수 있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공부문, 자재보장부문, 운영준비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연구하고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당대외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은 전변의 력사를 창조한다

이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섰다.

세계적인 대류행성전염병과 그에 따른 경제침체는 인류에게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있으며 지구상 곳곳에서는 뿌리깊은 종교간, 지역간 분쟁이 그치지 않고있다.

하지만 동방의 나라 조선에 펼쳐지는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되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화국인민의 올해 첫걸음, 첫시작은 례사롭지 않았다.

정면돌파전!

세계가 이해의 시작부터 숨가쁜 걸음을 내짚고있을 때 공화국인민은 힘차게 내달리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적을 떨치고있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겠는가.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이다.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 …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제시하시며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공화국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최우선, 절대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 …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기이고 활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으로 그이께서는 이 땅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꽃피워가고계신다.

올해초 대류행성전염병이 인류에게 커다란 위험으로 밀려왔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즉시에 인민사수전의 조치를 취해주시였고 3월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이라는 사랑의 봄뢰성을 울리시였다.

돌풍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역경속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것이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전으로 령도해나가시는 속에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소식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던가.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의제를 론의한 정치국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총화와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시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사랑의 집은 믿음의 기초우에 세워진다고 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 혼연일체로 굳건한 사회주의의 크나큰 집, 인민의 락원이 바로 공화국이다.

고통과 질식속에 몰아넣으려는 적대세력의 제재책동과 설상가상으로 겹쳐든 대류행성전염병의 위협속에서도 공화국인민은 자신만만한 웃음을 날리며 불타는 열정으로 창조와 기적을 떨치고 인민의 집—사회주의를 더욱 아름답고 부강하게 일떠세워간다.

착공한지 불과 석달도 안된 평양종합병원은 자기의 웅자를 완연하게 드러냈으며 정면돌파전의 진군길에서 완공된 순천린비료공장에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동음소리가 지축을 울린다.

황해남도의 2단계물길은 황금이삭 물결치는 가을을 부르며 굽이쳐 출렁이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원산제염소, 사리원방직공장,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자랑찬 성과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있다.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은 이처럼 공화국인민이 만난시련을 뚫고 제힘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비루스와의 전쟁》과 가지가지의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사랑으로 풍요롭고 웃음꽃이 만발하며 기적의 열매가 주렁지는 인민의 나라 공화국은 더욱 눈부시게 이채롭다.

사랑과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해가는 정면돌파전은 모든 시련과 난관을 격파하고 올해를 공화국의 력사에 빛나는 한페지로 장식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공화국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는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다.

허영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여름철답사 진행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여름철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가슴깊이 새기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다그치고있다.

지난 6월 중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첫 여름철답사행군대오가 평양을 출발한 때로부터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답사단체들이 꼬리를 물고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먼저 혜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고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혜산혁명렬사릉을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을 참관하고있다.

혜산—삼지연행렬차를 타고 삼지연청년역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한 다음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출발모임을 가지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청봉, 건창, 베개봉숙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에 있는 귀틀집들과 우등불자리, 밥짓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항일선렬들처럼 시련을 박차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자가 될 불같은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백두산정에 오른 인민군군인들과 전국각지의 여러 단위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신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에 더욱 강렬히 굽이쳐흐르는 7월이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여도 민족의 어버이께로 달려가는 인민의 그리움은 끝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는 모든 재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업적이 깃들어있다.

나라의 한끝 최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의 남단에 이르기까지, 동해의 포구로부터 서해의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이 살고 일하는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 그 어디에나 수령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나라의 동북쪽 마지막마을인 우암동과 해발 2 500여m를 헤아리는 관모봉기슭에 있는 경성군 온포협동농장에도, 바다길을 항해하시며 찾으신 비단섬은 물론 날바다를 가로막을 갑문위치를 정하여주신 서해의 배길에도…

그이께서 건국의 초행길에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2만 600여개에 달하며 그 나날 이어가신 헌신의 장정은 57만 8 000여km(144만 5 000여리)를 헤아린다.

이민위천을 좌우명,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은 친근하고 인자하신 어버이의 모습으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어버이, 이 말이 사랑과 경모의 정을 뜻하는 말로 불리운 력사는 오래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친근관계를 상징하는 이 말이 그 언제, 그 어느 시대에도 공화국에서처럼 인민과 수령과의 끊을수 없는 혈연의 뉴대를 상징하여 불리운적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어버이라는 호칭에는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 흠모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특전이나 특혜도 일절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자신의 한생에서 인민이 지어드리는 하나의 부름만은 만족스럽게, 스스럼없이 받아들이신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버이》라는 부름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방문한 한 유럽나라의 정당대표단을 만나신 일이 있다.

담화석상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함께 민족간부문제해결의 경험에 대하여 들려주신 그이께서는 그 자리에 참가한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그들도 우리가 키운 일군들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우리 일군들이 나를 어버이라고 부르고있다고, 나는 우리 일군들이 나를 어버이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리 일군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 나라의 충신이 되고 견결한 혁명가가 되라고 말하여주군 한다고 하시였다.

국가의 수반인 주석이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자이시며 국제적으로도 정치의 거장으로 공인된분이시지만 수령님께서는 공직이나 그 어떤 명예보다도 어버이라는 인민의 부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였다.

자신을 어버이로 부르며 받들고 따르는 인민을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시며 멸사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고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나라를 이끄시였다.

공장의 기대앞과 협동벌의 논밭머리에서, 건설장과 과학연구기지에서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여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정책작성의 실마리와 국가발전의 길을 찾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지향과 념원,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한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가시였으며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등 여러가지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시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이 차례지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 평소에 품고계신 제일 큰 념원은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살도록 하는것이였다. 인민의 행복이자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목적이였고 기쁨이고 락이였으며 휴식이였다.

그이께서 인민들의 생활문제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최고사령부가 까이에 닭사와 양어장을 만들어놓고 닭과 칠색송어를 기르시고 남새밭에서 여러가지 남새들을 재배하시며 가금업과 축산업, 양어와 남새농사의 전망을 구상하시였겠는가.

고기와 알생산을 본격적으로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시환경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띄워 종자들을 가져오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공급하는데서 한몫하고있는 함경남도 정평군의 광포오리공장도 그렇게 되여 꾸려진 가금기지이다.

인민의 어버이로 사시는것을 긍지로 여기신 수령님의 심중에는 늘 식량, 소금, 닭알, 물고기, 비누, 신발, 땔감과 같은 인민생활지표들로 가득차있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생신날, 명절날, 일요일 가림없이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다 기울이시였다.

어느해 8.15조국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농장의 관리위원장은 무더위속에서도 농사일을 두고 마음쓰시는 그이께 어버이수령님, 오늘은 조국해방의 날이여서 온 나라가 다 즐겁게 쉬는데 명절날 하루만이라도 휴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협동농장의 포전길을 걷는것을 휴식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 농사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명절의 하루도 현지지도로 보내시는 수령님의 모습은 나라의 농업생산과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인민의 생활이 향상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로운 사랑이였고 다심하고 각근한 인정깊은 사랑이였다.

어느해 겨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온천군의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할머니에게 가정살림살이형편을 물으시였다.

그이의 인정넘치는 물으심에 그는 지금이야 얼마나 잘삽니까, 먹을 걱정이 있습니까, 입을 걱정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공부시킬 걱정이 있습니까, 그전엔 집에 벽시계도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글쎄 단발머리 손녀애까지 더 좋은 손목시계를 차겠다고 야단입니다라고 대답올리였다.

그러나 인민생활문제를 놓고서는 만족을 모르시는 수령님께서는 할머니가 입고있는 솜저고리두터이와 얼음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솜옷을 유심히 눈여겨보시고 인민들과 학생들의 솜옷을 더 모양있고 더 질좋게 해입히도록 할데 대하여 군내 일군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 끝없는 열정의 원천이였기에 그이께서는 한평생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세찬 파도와 바람이 부는 궂은날 인민을 위하여 한번 결심한 일이니 비를 좀 맞더라도 꼭 가보아야 한다시며 배길에 오르시고 비물에 길이 진창으로 변하고 발조차 제대로 옮길수 없어 일군들이 주저할 때 형식주의를 할바에야 섬에까지 무엇하러 오겠는가 하시며 앞장서 진창길을 걸으신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의 이야기를 비단섬은 오늘도 길이 전하고있다.

조국건설의 그 새벽에 첫 기적소리를 울린 그이의 인민행렬차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멈춤이 없이 줄기차게 달리였다. 그 나날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의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고 온천군과 평양교외의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농사문제를 의논하시였다.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에게 베풀어진 어버이의 극진한 사랑은 이처럼 불면불휴, 불철주야로 이어진 무한한 사랑이고 헌신이였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늘 입으신 군복외투가 정히 보관되여있다. 옷깃이 다 닳아 보풀이 일고 해여진 그 외투의 오리오리에는 위기에 처하였던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멀고 험한 길을 헤쳐오신 그이의 애민헌신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생애의 마지막시기 온천군 금당벌을 찾으신 수령님께서 내가 지팽이를 짚고다니는것을 보면 인민들이 가슴아파한다고, 그러니 힘들어도 그냥 걷자고 하시며 한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논벌을 걸으시던 모습은 오늘도 금당벌농민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로운 어버이의 모습으로 영원히 빛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과 유훈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이 무성한 열매로 무르익고있다.

공화국이 부강번영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이 빛나게 실현되여가는 오늘의 시대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한 어버이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리 설

유자녀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50(1961)년 5월

위대한 생은 천만년 길이 빛나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태양의 친필

오는 7월 7일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6돐이 되는 날이다.

《김 일 성
1994. 7. 7.》

새기면 새길수록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인의 거룩한 한생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안겨오는 글발이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바로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분초를 쪼개가며 정력적으로 사업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년로한 몸이심에도 한밤을 지새우며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력사적문건을 보시고 친필존함으로 비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김정일**동지에게 내가 문건을 비준했다고 보고하라고, 이대로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 력사적문건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력사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문건으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애국애족의 한평생,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무한한 애민헌신의 한평생이였다.

일찌기 조선이 해방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나날 우등불가에서 그려보신 해방된 조국은 분렬된 나라가 아니였다. 하나의 강토우에 존엄과 국력을 떨칠 인민의 나라였다.

하기에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혁명령도는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과 잇닿아있었다.

어느해 4월 15일, 온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만시름을 놓고 편히 쉬셔야 할 뜻깊은 탄생일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로 마음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늘 한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라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하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어느해 탄생일에도 일군들이 올리는 축배잔을 받으시고 민족의 절반을 남에 두고 이 잔을 들자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쓰린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였다.

진정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고 최대의 념원이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강국건설의 고귀한 밑천으로, 필승의 표대로 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대기구인 범민련의 조직과 활동에도, 해마다 성대하게 개최되였던 범민족대회들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설사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뉘우치고 민족과 통일을 위해 나서려는 사람들을 모두 품어안아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따사롭고 넓으신 품을 찾아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사람들과 해외동포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그 거룩한 생애와 크나큰 업적을 길이 전하며 겨레의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력사의 땅 판문점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가 세워지게 되였다.

오늘도 판문점을 찾아 그 친필비앞에 서있느라면 어버이의 따뜻한 정이 어려오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라는 간곡한 유훈의 음성도 들려오는것 같아 눈시울 적시는 우리 겨레이다.

민족분렬의 년륜은 어언 75돌기를 새겨가고있지만 통일된 강산에 살려는 겨레의 열망은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오늘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온 겨레는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바라시였고 우리 민족이 열망해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그리움속에 7월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고매한 덕성,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하기에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지난 20세기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세기였다고,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시여 미증유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런 대성인은 고금동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교시가 오늘도 메아리쳐오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인가 자신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온 전 행정에서 언제나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고, 화전에서 《ㅌ.ㄷ》를 조직하고 혁명활동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동안 나는 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왔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조선인민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우리 겨레가 벌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휘날려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해방직후 외세와 그 추종세력에 의해 민족분렬책동이 날로 우심하였던 엄혹한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온 겨레를 단합과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였던 그때에도 온 민족의 대단결로 반통일광풍을 밀어내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 나날에 온 겨레를 품에 안아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광폭의 정치에 매혹되여 최덕신, 윤이상, 최홍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남녘의 각계층 인사들이 평양을 찾아왔으며 진정한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헌신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로서 조국통일운동사에 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대회참가자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이 거둔 성과를 축하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숙망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고,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이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두가 조선의 참된 애국자, 조국통일운동의 투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한평생이 그대로 비껴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위업은 오늘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앞으로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주체105(2016)년 6월 29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이였다.

국가의 존엄과 영예, 위상은 나라를 이끄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국력강화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였으며 국가정권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삼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도록 하시는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공화국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위의 군력을 최대로 강화하신것은 나라와 인민앞에 쌓으신 영구불멸할 공적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들, 포연이 자욱한 전투훈련장들을 찾고찾으시며 병사들에게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천리방선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 무수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공화국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최첨단무기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게 되였으며 인민군대는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가진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자력갱생을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위력한 추동력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에만도 삼지연시 2단계공사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이 훌륭히 결속됨으로써 주체건축의 발전면모와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농업과 수산업, 과수업과 축산업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황금산, 황금벌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였다. 지난해와 올해에만도 대규모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순천린비료공장이 일떠서고 황해남도물길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농업생산을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으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물샐틈없는 비상방역조치가 취해지고 평양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건설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투철한 민족자존의 립장과 령활한 지략으로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전례없이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자주권과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한평생 애민헌신의 한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고 문명하게 해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인민생활문제때문에 심려하시며 국가적대책들도 취해주시고 도처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무수히 일떠세워주시였다.

북방의 눈바람을 맞으시며 찾고 또 찾으신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백두산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삼지연시도 인민의 리상향, 산간문화도시로 전변되게 되였다.

봇나무거리, 밀영거리, 청봉거리, 리명수거리, 못가거리, 베개봉거리에서 삼지연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지금 가슴뜨겁게 체험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양덕땅에는 또 어떤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새겨졌는가.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승마공원과 스키장, 각종 편의시설들을 갖춘 양덕땅에서 행복에 겨워 토로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강산을 울리고있다.

《이름없던 우리 양덕땅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덕, 우리 원수님덕에 온 세상이 다 아는 문명산촌이 되였습니다.》

삼지연시와 양덕땅만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평양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민헌신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가 생산되여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평양의 문수지구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시려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까지 합쳐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수많은 형성안까지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몸소 가방도안가가 되시여 학생용가방생산을 위한 수백건의 도안도 보아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일떠세워주시고는 30여년전 수령님의 교시를 오늘날에 와서 집행하게 되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욱이 새겨진 곳이라면 그 어디건 찾아가시여 수령님들의 유훈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받들려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꽃펴나고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농장포전길을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나라의 농사문제로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속에 얼마전에는 순천린비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대동강변의 명당자리에 평양종합병원의 위치도 정해주시고 몸소 착공식에 나오시여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것이고 우리 인민들도 남녀로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첫삽을 뜨신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병원건설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신기복

록음우거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기만적인 《쇄신》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 궁지에 몰린 《미래통합당》이 그 출로를 열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쇄신》과 《변화》를 떠들면서 보수재건을 위한 《당혁신》놀음에 매달리고있는 것이 그러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의 면모를 《극우보수》로부터 《합리적인 보수》로 시급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당의 정치리념을 나타내는 정강, 정책에 독립운동력사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있는 김구묘소를 찾아 참배한다 어쩐다 하면서 마치도 독립운동관련자들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듯이 설레발을 치고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 아닐수 없다.

그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은 친일에 뿌리를 둔 오갈데 없는 친일파정당이다. 이런 친일매국정당에 있어서 반일은 그대로 입에 올리지조차 말아야 할 단어였다.

이런 쓸개빠진 매국노집단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투쟁력사를 당의 정강,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다.

땅우를 걷는 짐승이 갑자기 하늘을 나는 새가 된것처럼 말이다.

백범 김구로 말하면 《미래통합당》의 먼 조상인 리승만도당에 의해 백주에 살해된 사람이다. 어제는 저희들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무참히 살해하고 오늘에 와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싶게 뻐젓이 그의 무덤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은 파렴치의 극치라 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항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일본상품배척운동을 할 때 《우리 일본》,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해야 한다.》고 망발하던게 그리 멀지 않은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속이려고 《반일애국》의 흉내를 피우지만 그 검은 속심을 못 알아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이 앞에서는 독립운동력사를 운운하지만 뒤에서는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친일파들을 들어낼데 대한 민심의 요구를 정면거역하면서 과거 친일파들의 죄행을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다.

뿌리도 친일매국, 줄기도 친일매국인 《미래통합당》이 《쇄신》타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그 체질이 달라질수는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지독한 파쟁군들

《림제의 신발》이라는 우리 민속사화가 있다.

술집에 간 림제가 동인과 서인들이 따로따로 앉아 술을 마시는것을 보고 꼴보기 역겨워 나오면서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말에 올랐다고 한다. 하인이 그에 대해 말하자 림제는 길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죽신을 신은줄 알게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짚신을 신은줄 알거라고 흔연히 대답하였다는것이다. 당파싸움으로 모든것이 뒤죽박죽되고 헝클어진 세상에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것이 무슨 대수냐 하는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대의 당파싸움을 비난한 사화이다.

요즘 남조선정국을 보면 지독한 파쟁군들의 싸움판을 방불케 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선출과 주요《법안》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이 뒤발목을 잡는 바람에 21대 《국회》는 열린지 수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국회》를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시켰다.

《미래통합당》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염을 토하였다고 한다.

더우기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라는자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저들이 무조건 차지하겠다고 생떼를 쓰면서 며칠동안이나 어느 한적한 골방에 틀어박혀있었고 다시 나와서도 《국회》상임위원회에 배속시킬 위원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던것과는 달리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앙탈을 부렸다는것이다.

더 나아가서 《미래통합당》것들은 여당이 《상생》과 《협치》를 버렸다고 고아대며 《국회보이꼬트》까지 선언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개혁, 혁신》의 미명하에 그 무슨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광고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를 들고나섰지만 역시 민심을 얻어보려는 오그랑수에 불과한것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자파세력확장을 둘러싼 《미래통합당》의 내부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늙다리 정치철새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끌어들인 《미래통합당》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세력과 극우보수들로 이루어진 중진세력사이의 대립으로 여전히 골머리를 썩이고있다고 한다.

자기의 《혁신》놀음을 성사시켜보려고 초선의원들을 끌어당기고 이른바 《여당과의 협치》를 떠들며 오그랑수를 쓰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그에 반발하여 《좌파 2중대의 흉내》라고 비난하는 중진의원들사이의 다툼질로 하여 《미래통합당》내부에 새로운 계파가 형성되고 그 후유증은 다음기 《대선》까지도 이어질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래통합당》것들이 자기 무리의 리속을 차리기 위해 안팎에서 날뛰고있으니 남조선민심으로부터 《정신못차린당》, 《정말짜증난당》, 《망한당》, 《해체할당》 등의 비난을 받고있는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수라장으로 만들어가고있는 남조선정국을 16세기의 작가 림제가 보았다면 과연 어떻게 야유하였을가.

림제의 소설 《꽃력사》에서 나오는 글로 대신 적어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꽃과 풀같이 어질고 믿음직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그의 심정이 온전하고 바르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 명예와 욕망과 권력에만 얽매인자들이야 어찌 자기의 천성을 보전하여 바른 길로 나갈수 있으랴.》

본사기자 김정혁

어리석은 개꿈

지금 남조선의 《미래통합당》내에서 뚱딴지같은 《대권》타령이 자주 울려나와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불쌍사나운 처지에서 이에 대해 자주 입에 올리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것이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당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는 임명되기 전부터 구태정치인들로서는 보수집권이 어렵다며 《40대 경제전문가》를 보수진영의 후보감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후에는 당비례대표 초선의원들과의 오찬이라는데서 생뚱같이 어느 한 방송인 겸 료리연구사의 이름을 거들며 《인기가 있더라.》, 《그런 사람이 하면 어떠냐.》고도 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보수내의 《인물》로 꼽히는자들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레발치며 돌아치는 판이라고 한다.

남조선정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것들이 《대권》소리를 뜬금없이 늘어놓는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부터 민심의 이목을 끌어 저들에 대한 인기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으로부터 타산된 발언이라고 평하고있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지금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준렬한 심판으로 파멸직전의 막다른 처지에 빠져있다.

이미 력사의 심판을 받은 보수꼴통들은 셈에 치지 않더라도 살아남아서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작자들 역시 하나와 같이 권력과 치부에 눈이 멀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오물들이여서 남조선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보수패당의 두목감투를 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 역시 권력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오락가락하는 박쥐의 행보도 가리지 않았으며 몇해전에는 먹은 나이도 분간 못하고 《대선》후보로까지 나섰다가 주저앉은 정치시정배이다.

남조선정계와 여론들은 남조선정국사상 보수패거리가 이처럼 《인물》난에 처해보기는 지금이 처음이라는 평가도 내리고있다.

그러니 수십년간 친미사대와 군사파쑈독재, 온갖 정치적사기와 협잡으로 권력을 강탈하고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 권력형부정부패를 마구 감행하며 부귀와 영달을 누려오던 《미래통합당》패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져나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결국 《미래통합당》것들이 아직도 2년이나 남아있는 다음기 《대선》을 놓고 벌써부터 《후보》소리를 줴치며 횡설수설 하는것자체가 어떻게 하나 민심의 눈길을 저들에게 집중시켜 나락에 빠진 더러운 운명을 구원해보려는 음흉한 계략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개꿈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미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콩가루정당》, 《뇌가 없는 정당》, 《쫄딱 망한 정당》이라고 놀림받으며 아예 말짱 망하는것이 낫다는 조소까지 받고있는 《미래통합당》것들이니 아무리 권모술수에 능하다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예로부터 오르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라고 했다.

남조선민심은 이미 《미래통합당》이라는 뒤집어진 배에 침을 뱉은지 오래다.

강영성

단평 민심이 등을 돌린 부패보수당

얼마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 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비호감도》가 근 70%에 달하였다. 지역별로 보아도 서울과 경기도,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의 전반적지역에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훨씬 릉가하였다고 한다. 주목되는것은 《미래통합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지역에서조차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근 두배나 높았다고 한다.

여론조사결과는 《미래통합당》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 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것은 믿음이 가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래통합당》하면 누구나 파쑈와 동족대결, 사대굴종과 반인민적인 악정, 부정부패를 떠올린다.

그들의 원조상인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미래통합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보수패당의 반역적체질에서 달라진것이란 하나도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시종 변하지 않은것이 《미래통합당》의 대결기질, 독재기질, 부패기질이다.

이런 보수역적당이 지난 4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보수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진단까지 받아 우거지상이 된 《미래통합당》것들이 《변화》와 《쇄신》을 떠들며 달라질것처럼 놀아댔지만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쟁에 몰두하며 《식물국회》를 다시 만들어가고있는것은 이 역적당에는 약이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러니 누가 《미래통합당》을 좋다고 하겠는가. 민심의 충고도 새겨듣지 않고 민생은 아랑곳없이 계속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에만 눈이 벌개 돌아치는 보수역적당에 민심은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려댄것이다.

민심이 등을 돌린 보수역적당, 그것은 그 누구를 탓할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대접으로서 자기탓을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남조선대학생들 극우단체들의 소녀상철거책동에 맞서 롱성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소속 대학생들이 6월 23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주변 소녀상앞에서 롱성시위를 벌렸다.

그들은 6월 20일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의 뒤에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거는 등 소녀상철거기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규탄하였다.

소녀상철거를 운운하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을 외곡, 모독하는 극우단체들의 망동을 비난하면서 소녀상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철야롱성을 벌릴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소녀상 테로하는 친일극우무리 규탄》이라는 글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소녀상을 지켜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활동 진행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서명운동과 요청활동이 6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도꾜와 니시도꾜, 사이다마지역 조선학교 유치반관계자들과 보호자들, 총련일군들 그리고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일본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에 조선학교 유치반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서명문과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재일동포들과 각계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교육차별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한것은 불평등하며 일본법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며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시민단체들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항의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COVID-19》의 확산과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시킨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다마》와 《일조우호녀성 네트워크》는 련명으로 6월 19일 문부과학성에 요청문을 제출하였다.

요청문은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지원금지불대상에서 제외시킨 당국의 처사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다마》 공동대표, 《일조우호녀성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한 단체의 관계자들은 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사회악 어린이학대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사실들이 련속 드러나 사람들속에서 큰 충격을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문제는 학대행위를 가한 가해자들이 바로 피해자들의 부모들이라는것이다.

지난 6월초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려행용가방안에서 의식을 잃은 9살 난 어린 남자아이가 발견되였다고 한다. 어린아이는 병원에 실려가 며칠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밝혀진데 의하면 어린아이를 려행용가방안에 넣은 당사자는 40대의 녀성으로서 이붓어머니라고 한다. 이붓어머니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교양의 미명하에 어린아이를 려행용가방안에 넣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였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붓어머니가 아이를 가방안에 넣고 그우에서 여러차례 뛰뛰기도 하고 건발기로 가방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고 하면서 고의적이며 끔찍한 살인사건이였다고 밝히였다고 한다.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이보다 앞서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9살 난 녀자어린이가 이붓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매일과 같이 고문과 같은 학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붓아버지와 친어머니는 수시로 쇠막대기와 빨래건조대로 어린이를 때렸고 시뻘겋게 달군 지짐판으로 아이의 몸을 지져 화상도 입히였다고 한다. 더 나아가 목을 쇠사슬로 묶어 란간에 자물쇠로 고정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고 욕조물에 머리를 담그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치떨리는 잔혹한 학대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왔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에서 40대의 녀성이 8살, 9살 난 자기 자식들을 옷을 벗긴채 산속에 내버려두는 악행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발견당시 아이들의 발바닥에는 심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들을 두고 언론들과 각계는 정녕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대행위들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미래통합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왕릉과 고분에 대한 날강도적인 도굴, 파괴범죄

예로부터 선조의 무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조상전래의 도덕적관습으로, 고상한 미풍량속으로 간주되여왔다.

그러나 초보적인 륜리도덕도 모르는 파렴치하고 잔악무도한 일제는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소중히 보존하여오던 왕릉을 비롯한 고분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마구 략탈해가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단군릉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도굴, 파괴행위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제는 릉의 봉분을 파헤치고 무덤칸 천정돌을 제낀 다음 유물을 략탈하기 위하여 관을 마스고 지어 유골까지 마구 헤쳐버렸다.

일제는 왕릉도굴사건이 드러나는 경우에 일어날 조선사람들의 반항이 두려워 도굴때마다 그 주변에 2중, 3중의 삼엄한 경계망을 쳐놓군 하였다.

일제의 대대적인 왕릉도굴만행으로 인하여 고려의 력대왕과 왕족의 릉들이 무참히 파괴되게 되였다.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 그의 비 순경태후의 가릉을 비롯하여 34대로 이어진 고려왕의 분묘들이 일제에 의하여 단 1기도 남지 않고 모조리 도굴당하였다.

일제악한들은 전대미문의 강도적인 방법으로 경효왕릉도 파괴, 도굴하였다. 일제는 헌병, 경찰 등 수십명으로 구성된 도굴단을 조직하고 폭약까지 리용하여 왕릉을 무참히 파괴하였다. 그리고는 그안에 들어가 수많은 유물들을 략탈하여 10여대의 달구지로 실어갔다.

일제는 왕릉뿐아니라 각이한 시대의 각종 고분들도 모조리 파헤치고 수많은 유물들을 략탈하여갔다.

일제는 1921년 12월에 경상남도 량산의 신라시기 부부무덤을 파고 금동제관, 목걸이, 귀걸이 등 우수한 문화유물들을 수많이 략탈해갔다.

그리고 1924년 10월에는 경찰들까지 동원시켜 평양부근의 옛무덤들을 파헤치고 우리 민족의 발전된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을 모조리 략탈해갔다.

락랑고분에 대한 일제의 도굴만행도 참혹하였다.

1920년대에 일제의 도굴만행으로 파괴된 락랑고분은 일본어용학자들이 실토한것만 해도 1 000기에 달한다.

《당시 평양에 살던 일본인치고 락랑고분에서 나온 옛 거울이나 질그릇과 같은 것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머저리취급을 당하였다.》

이것은 평양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한 일본인이 1934년에 발표한 글에 기록되여있는 력사자료의 한토막이다.

이 하나의 사실자료만으로도 당시 일제의 고분도굴만행이 어느 정도로 로골화되고있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을 지낸 후지다 료사꾸는 《고분을 파괴하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서 파는것과 같은 현상은 세계가 넓다하더라도 조선이 유일한 례에 속한다.》고 실토하였다.

일제의 왕릉과 고분도굴범죄의 엄중성은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재부에 대한 강탈이 아니라 조선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송두리채 없애버리기 위한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감행된 범죄라는데 있다.

일제는 왕릉을 비롯한 고분들에 대한 도굴을 통하여 조선의 풍부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략탈하는 동시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혈통과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획책하였다.

일제가 단군릉도굴시 무덤안을 파괴하고 란잡하게 만들어놓은것은 조선의 력사를 인류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인 책동이였다.

참으로 조선의 왕릉과 고분들에 대한 날강도적인 도굴, 파괴범죄는 우리 민족의 넋과 전통, 문화와 력사를 없애버리고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감행된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대죄악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새형의 무궤도전차설계를 완성하던 나날에

지금 록음우거진 평양의 거리들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인민의 웃음싣고 씽씽 달리고있다.

볼수록 멋있고 삶의 랑만과 긍지를 북돋아주는 이 무궤도전차도 공화국의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만들어낸것이다.

2018년 3월 수도려객운수국 운수설계연구소 일군의 방에서는 열기띤 토론이 벌어지고있었다.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설계원모두가 커다란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얼마전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무궤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믿음이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전차의 기술상태가 좋다고 하시면서 무궤도전차의 기술적특성을 보다 갱신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또다시 맡겨주시였던것이다.

누구나 형성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립장은 명백하였지만 실지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안은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하나하나가 어려운 기술적난점을 안고있었고 또 설계는 한다고 해도 제작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 하여 쉽게 결심할수 없기때문이였다.

이때 수도려객운수국의 일군은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방도는 얼마든지 생긴다, 모든것이 설계의 질적수준에 달려있으니 힘을 합쳐 해보자고 하면서 설계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무궤도전차의 기술적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처음 이들앞에 나선 과제는 앞면유리부분에 대한 설계였다. 형성안대로 하자면 앞면유리설계의 3차원화를 실현해야 하였다. 종전의 유리설계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설계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무궤도전차의 미학적요구를 실현하느냐 마느냐가 앞면유리설계에 달려있었다.

두번째로 열린 방안심의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 모두가 락심해있을 때 한 설계원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나갔다. 그 방안이 얼마나 기발하고 독특하였던지 그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저마다 찬동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형성안에 맞으면서 제작에도 편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앞면유리설계가 진행되였다.

처음 해보는 설계인지라 애로와 난관이 많았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설계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전투를 벌려나갔다.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제작하기 편리하면서도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3차원유리설계를 훌륭히 완성하게 되였다.

미닫이식이동창이 달린 옆면유리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설계원들은 설계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옆면유리설계에서는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한 수도려객운수국의 한 일군은 설계원들에게 물론 형성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할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설계를 훌륭히 완성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확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때부터 설계원모두가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내놓기 위한 연구사업에 떨쳐나섰다. 연구소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의 지향은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속에 이들은 마침내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현대적인 유리설치방법을 도입할수 있는 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야말았다.

이 과정에 설계원들의 정신력은 더욱 분출되여 무궤도전차의 의장품설계도 국내실정에 맞게 새롭게 완성하게 되였다.

이들은 설계에 찍혀지는 점 하나, 단순하게 긋는 선 하나도 결코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운수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불타는 애국충정과 완강한 투쟁으로 무궤도전차설계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하였다.

주체107(2018)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면서 손색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모든 의장품들을 자체로 만들어낸데 대해 그리도 기뻐하시며 백점만점짜리라는 최상의 평가도 안겨주시였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운수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에서 《천리마 9.11》형무궤도전차를 처음으로 만들던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그 나날에 발휘된 자력갱생의 정신이 년대를 이어,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되고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수도려객운수국 운수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교통운수수단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혁신의 불바람을 계속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정면돌파전은 인민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지키고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공화국은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도 서슴없이 내리고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일이라면 나라의 재부를 아낌없이 통채로 기울여왔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국가의 모든 사업이 인민사수, 인민복무로 지향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은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주동적인 공격, 적극적인 공세로 올해의 정면돌파전에서 인민을 위한 거창한 작전을 련이어 펼치고있다.

평양의 명당자리에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은 평양종합병원건설을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지금 병원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새 경륜을 수놓아가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에 안고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공화국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그것은 자력갱생이 공화국의 영원한 진로이고 자력, 자강의 위업만이 나라와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총진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총화와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지난 5월의 하늘가에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을 장쾌하게 울린 순천린비료공장의 준공은 자력갱생의 위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인민경제 그 어느 부문에서나 올해의 정면돌파전에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기어이 승리를 안아올 인민들의 드높은 투쟁열기를 느낄수 있다.

강력한 자기의 힘을 키워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자자손손 복락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공화국의 정면돌파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여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관상적가치가 큰 말린소나무제품들

—중앙식물원에서—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 넋과 의지, 숨결은 소나무의 생물학적특성에 그대로 비껴있다.

공화국의 중앙식물원에서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로 관상적가치가 큰 말린소나무제품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일반적으로 말린식물제품은 탈수, 시약에 의한 색갈보존과 형태처리를 한것으로서 실내장식용으로 그 가치가 크다.

지난 시기 대체로 식물표본형태로 리용되던 말린식물제품들은 오늘날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문화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장식품으로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그에 맞게 중앙식물원의 연구사들은 말린소나무제품을 훌륭히 제작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말린소나무제작에서 잎의 자연적인 형태를 보존하면서 보관기일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였다.

유원지총국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에 말린소나무제품을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곳 연구사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말린소나무제품제작의 주요공정들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약들을 리용하면서도 자연미를 살리고 보존기일을 더욱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이 과정에 말린소나무제품제작에 필요한 시약의 대부분을 국내원료에 의거한 시약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질적수준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형예술성이 보장된 말린소나무제품견본보장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곳 연구사들은 우리 민족의 사상감정을 조형예술적으로 잘 반영하기 위하여 식물원구내의 소나무들은 물론 시내의 여러곳과 소나무산지들을 답사하면서 사진도 찍어오고 대중의 의견도 들으며 말린소나무제품견본안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말린소나무제품을 훌륭하게 제작하고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더욱 빛내이려는 이들의 노력으로 하여 조선의 국수 소나무는 인민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우리 공장, 우리 제품

조선의 특산물—개성고려인삼제품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모양이라는데서 지어진 이름인데 산에서 저절로 자라는것을 산삼이라 하며 재배하는것을 인삼이라 부르고있다.

인삼은 고려시기에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면서부터 《고려인삼》, 《개성인삼》으로 불리우며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풍토와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이 인삼재배에 적합하고 상업이 발전한 개성지방은 인삼재배 및 가공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옛 유적들이 많을뿐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금 한근보다 낫다고 일러온 개성고려인삼으로 유명한 개성, 바로 이곳에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이 위치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는 지방특산인 개성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개성고려원형홍삼, 개성고려인삼복합영양가루, 개성고려인삼꿀, 개성고려인삼탕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수십여종의 인삼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뛰여난 효능과 사람들의 눈맛을 끄는 정교하고 특색있는 포장으로 하여 이 공장의 인삼제품들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고마운 제도에서

덕과 정으로 화목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장애자들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자들이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여러가지 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국가적관심을 돌리고 많은 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로동분야에서 장애자들은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 체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장애자들을 위하여 조직된 전문기업소나 단체에서 일할수 있다.

해마다 5월이면 공화국에서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기능공학교 개학식이 진행되고있다.

장애자기능공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리발, 미용, 피복, 식료가공, 목공작업 등 갖가지 재능을 배워주어 그들이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재봉과 리발도

하고 여러가지 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보람차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자기의 취미와 희망에 맞는 로동생활을 하면서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는 장애자들속에는 조선장애자예술협회 로동자 김승일도 있다.

장애자인 김승일은 재능있는 악기제작자이며 공예애호가이다.

그는 바이올린을 훌륭히 제작하여 제9차,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각각 기술상과 과학기술우수상을 수여받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조각, 공예축전에 《구급차형약함》, 《꽃장식벽걸이》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출품하여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는 그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악기제작을 하도록 사심없는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이때부터 악기를 제작하는 그의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자기의 손으로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어 나라의 악기제작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은 그의 소중한 꿈이였다.

어머니조국은 장애자인 그에게도 11년제의무교육(당시)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으며 장애자들의 공연무대에도 내세워주고 장애자들을 위한 기능공학교에서 공부시켜주었다.

그는 태여나 지금껏 고마운 제도에서 받아온 그 사랑에 자기의 재능으로써 보답하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안고 바이올린제작에 달라붙었다.

청력장애자인 그가 악기에서 기본인 음을 들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치명적인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명현상을 리용하여 피아노의 건반이 눌리울 때 매 음정에 따르는 진동수를 손감각으로 감수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여 그 어떤 음도 감수하고 판별할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6개월만에 만든 바이올린이 평양악기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것이다.

오늘도 그는 나라의 악기제작발전과 공예발전에 이바지하는데서 자기 삶의 기쁨을 찾으며 악기제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조선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홈페지가 글 게재—

베네수엘라 인터네트홈페지 《엘 끌룹 데 라스 나씨오네스》가 《보건은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에서는 보건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로 보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다.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와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전문과적의료봉사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되고있다.

조선의 보건시책들은 철두철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복무하며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실시되고있다.

사회주의보건이 국제적관심을 모으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것이 예방의학이라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예방을 잘하여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을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도로 보고 질병예방과 위생문화적인 생활, 로동환경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도처에 의료봉사기지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그것은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족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때문이다.

본사기자

환이한 두 현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고있다.

평양종합병원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될 현대적인 병원이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무상치료제를 실시해온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도처에 수많은 병원들을 일떠세웠다.

최근년간에는 평양시중심부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옥류아동병원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보건을 인민적인 보건으로, 선진적인 보건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장엄한 발파소리를 울리였다.

평양종합병원이 완공되여 문을 열면 평범한 인민들 누구나 현대적인 병원에서 마음껏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오직 공화국에만 있는 현실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살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을 끝없이 부러워하면서 《조선의 보건제도는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보건제도이다.》, 《조선의 보건제도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보건제도이며 세계적인 모범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세계에는 《최상급》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신식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병원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중시하는것이 통례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리용하고있는 각이한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병원들에서의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단순한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일명 호주머니지불형식이라고도 하는 이 재정지출방식은 의료봉사활동이 전적으로 환자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진행되게 한다. 환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수 있고 의사들과의 상담도 요구할수 있게 하는것이 호주머니지불형식이다.

이외에도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각종 보험제에 기초한 재정지출방식이 있다. 그러나 모든 방식들의 근저에는 환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빨아내자는 목적이 깔려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리용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은 어느것이나 다 부정부패행위와 불합리한 재정지출현상을 산생시키고있다.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오면 환자는 자기의 병상태와는 관계없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받아내여 엄청난 리윤을 보고있다.

《현대문명》, 《만민복지》를 떠드는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병원접수비가 보통 170US$, 가장 초보적인 진찰비나 검사비는 800US$, 충수염수술비는 8 000US$에 달한다고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US$,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 200US$, 갓난아이의 하루입원비는 1 400US$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갔다가 돈이 없어 문전거절을 당하는 녀성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1 0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도 돈을 더 중시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인간의 생명우에 돈을 놓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제도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얼마나 판이한가.

이런 고마운 제도, 한없이 소중한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공화국인민들은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 사진속에 넘쳐나는 생활의 향기 ❖

❖ 문 화 사 진 관 에 서 ❖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나 생활의 의의깊고 인상적인 계기들을 두고두고 기억하고싶을 때 사람들은 사진을 즐겨 찍는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은 즐거워지고 생활의 향기는 더욱 짙어진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문화사진관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고있다.

얼마전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한쌍의 청춘남녀가 약혼기념사진을 찍고있었다.

전성남 문화사진관 관장: 《약혼사진이나 결혼사진을 남기는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목적은 같아도 찍는 방식은 매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성격과 취미, 직업, 생김새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것을 화면에 진실하고 생동하게 담을 때 사람들이 두고두고 추억하는 사진으로 될수 있지요.》

다양한 생활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깊은 순간을 찾아내여 사진에 담는것이 사진사들이다.

이곳 사진사들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사진찍는것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가족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진에 어떤것을 담고싶어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번은 아버지와 함께 사진관을 찾은 아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에 바쳐온 아버지의 한생이 사진에 담겨지면 좋겠다고 하는 말에서 착상을 얻고 서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촬영이 끝난 후 사진을 본 자식들은 정말 잘되였다고, 사진을 보면서 사심없이 제자들의 밑거름이 되여준 아버지의 한생을 추억하게 되고 또 아버지앞에 부끄럽지 않게 맡은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좋아하였다.

이곳 사진관에서는 손님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각이한 배경화면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촬영에 리용하고있는데 그 예술적효과가 자못 크다고 한다.

이들은 밝고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고 립체감이 강한 아크릴사진을 제작하고 자체의 힘으로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마다 사진이라기보다 한폭의 예술작품을 보는것 같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진을 받아들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사진첩과 액틀도 자체로 만들어 봉사해주고있는데 얼마전에는 량면인쇄기술을 받아들여 사진첩제작기술을 새롭게 혁신하였다.

자기들이 찍어가는 사진이 단순한 시각 및 정지화상이 아니라 약동하는 시대의 분위기와 생활의 아름다운 향기가 사진속에서 영원히 흐르게 하고싶다는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전성남관장은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앞선 사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 식의 새로운 인쇄기술을 창조하여 사진관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2019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1)

룡남산이 자랑하는 녀성교육자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강좌장 교수 박사 최춘화는 영화편집과정의 종합정보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높은 실력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앞장에서 이끌어온 룡남산의 손꼽히는 녀성교육자이며 과학자이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와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연구과제수행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한가정의 주부이고 더우기 나이도 적지 않은 녀성의 몸으로 교육사업과 동시에 첨단과학연구사업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해동안 긴장하게 진행해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았던 30대 초엽에 룡남산의 권위있는 교육자들과 나란히 조선지식인대회에 불러주고 40대에는 시각정보처리강좌의 초대강좌장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해왔다.

이 나날에 강좌의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값비싼 전용설비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첨단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으로 종합적인 영화편집공정체계를 확립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초고해상도흑백색사진을 천연색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였다.

가사보다 국사를 귀중히 여기고 30여년세월 룡남산의 교단을 지켜가는 보람찬 나날에 그는 여러차례의 훌륭한 과학교육성과를 이룩하였다.

여러개의 새 과목을 개척하고 근 20권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한 여러건의 론문 등 수십건의 론문을 집필하였다. 또한 수십건의 각종 과학기술증서를 수여받고 2명의 박사를 비롯한 여러명의 학위소유자를 양성하였다.

과학적이며 전략적인 안목으로 강좌를 시각정보처리분야의 관록있는 학술 및 연구집단으로 만들고 원칙적이면서도 강한 요구성으로 강좌성원들이 자기의 뚜렷한 몫을 가지고 높은 실력과 창조적인 협동능력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전투력과 집단력이 강한 일류급강좌로 되게 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김득신과 그의 그림

김득신은 18세기에 김홍도와 가까이 사귀면서 사실주의풍속화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자기의 그림에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 당대의 신분관계와 경제생활, 세태풍속 등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량반과 농민》, 《고양이를 쫓는다》 등이 있다.

김득신은 풍속화와 함께 산수화, 동물화도 그리였다.

그가 그린 인물풍속화들은 묘사대상의 폭이 넓고 주제와 내용에서 깊이가 있다.

《량반과 농민》은 여름날 나들이가던 부부가 길가에서 량반행차를 만나 공손하게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당시 불평등한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보여주고있다.

순진하고 소박한 부부와 눈웃음짓는 하인, 거드름피우는 량반 등 매 인물의 표정과 몸가짐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성격과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였다.

《고양이를 쫓는다》는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농촌집 안마당에서 벌어진 한 토막의 사건을 재미있게 보여주고있다.

고양이에게 물린 병아리의 울음소리에 놀란 어미닭은 고양이를 뒤쫓아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늙은이는 고양이를 치려고 담배대를 쥔 손을 내뻗치고있다. 방안에서 달려나온 그의 안해는 저걸 어쩌나 하고 손만 내젓고있다.

순간적인 상황을 해학적으로 형상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금할수 없게 한다.

김득신은 진지한 현실탐구에 기초한 생활계기설정에서의 재치, 인물성격형상에서의 예리성, 섬세성을 안받침한 생활묘사의 생동성과 현실반영의 진실성 등으로 사실주의풍속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풍속화 《고양이를 쫓는다》(김득신 작)

생활에서 삼가해야 할 점

—아침에 일어나서 인차 이부자리를 개지 말아야 한다.

먼저 방안의 공기를 10~20분간 환기시킨 후 개는것이 좋다.

—식사후에 허리띠를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

배안의 부담이 커지고 소화기계통에 대한 받침작용이 약화되면서 배가 붓고 아파나며 토하기까지 할수 있다.

—술을 마신 후에 TV를 보지 말아야 한다.

시력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이때 시력이 더 쉽게 나빠질수 있다.

—목욕을 한 후 머리가 마르기 전에 자지 말아야 한다.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다.

—식사후에 인차 자지 말아야 한다.

위장관운동이 굼떠지므로 소화기관이 약해진다.

—잠자기 전에 이발을 닦지 않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잠자기 전에 이발을 닦는것이 아침에 닦는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발름에 남아있는 병균은 밤사이에 파괴적작용을 하여 여러가지 구강질병을 일으킨다.

—심심풀이로 손가락뼈마디를 꺾는 버릇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습관되면 인대와 힘줄이 늘어나고 심한 경우 염증까지 생긴다.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자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피부에서 한선, 피지선 등을 막아놓아 로폐물배설에 지장을 주게 되며 염증이나 피부알레르기아를 초래한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국섬

국섬은 통천군 자산리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바다가운데 있는 섬의 경치는 매우 아름답다.

원래 참대가 많은것으로 하여 《죽도》라고 불리웠으나 외래침략자들의 침습을 막기 위해 이 섬의 참대로 화살을 만들어 리용한 다음부터 나라의 방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여 국섬으로 불리운다고 한다.

국섬은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파도와 바람에 깎이워 다각기둥을 묶어세운듯 한 절벽으로 되여있다.

국섬의 면적은 0.057㎢이고 둘레는 1.07㎞, 높이는 41m이며 150여개의 다각기둥모양의 립총들이 20~30m 높이로 절벽을 이루고있다.

섬의 세 면(북, 동, 남)은 잘 다듬어 세워놓은듯 한 다각형돌기둥들이 바다에 뿌리박고 줄지어있어 마치 총석정을 련상시킨다.

북쪽기슭에는 높이 20~30m의 수많은 돌기둥들이 우뚝우뚝 줄지어 서있다.

그것은 동해의 푸른 물결과 어울려 마치 푸른 비단필우에 병풍을 친것 같이 아름답다.

섬의 동쪽벽과 북쪽벽이 이어지는 모서리는 배머리처럼 뾰족하다.

예로부터 국섬은 명승지로 알려져 금강산의 한복판에 옮겨놓아도 짝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섬은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213호로 지정되였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사랑은 내리고 보답은 오른다.

언제나 사랑은 웃사람에게서 아래사람들에게로 내려가고 보답은 사랑을 받은 아래사람들에게서 웃사람들에게로 올라가는것임을 이르는 말.

❖ 한잔술에 눈물나고 반잔술에 웃음난다.

사람들사이의 교제에서는 물질적인것보다도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과 진정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 말같지 않은 말은 아예 듣지도 말라는것을 이르는 말.

· 원칙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는것을 이르는 말.

❖ 말하면 백냥금이요 입 다물면 천냥금이다.

푼수없이 말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것보다 아니하는것이 더 돋보인다는 뜻으로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는것이 좋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말은 바른대로 하고 큰 고기는 내앞에 내놓아라.

말은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며 가져간 큰 고기는 감추지 말고 내앞에 내놓으라는 뜻으로 말로 거짓을 꾸미거나 남을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을것을 꾸짖어 하는 말.

7월의 절기와 민속

7월은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서때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김매기를 따라세웠다.

대서를 전후하여서는 주로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중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삼복기간은 초복과 중복사이가 10일, 중복과 말복사이가 10일이다.

올해와 같이 중복과 말복사이가 20일 되는 해도 있는데 이러한 해의 삼복을 월복이라고 한다.

삼복철의 음식으로서는 단고기장, 초계탕, 팥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특히 단고기장은 삼복철에 우리 겨레가 즐겨 먹은 특색있는 민족음식이다.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에 조밥을 단고기장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푹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겨왔다.

단고기장뿐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만들어먹은 초계탕과 팥죽 등도 삼복철건강에 매우 좋은 전통적인 보양음식이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이며 대서는 7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욕심쟁이

지주가 죽기 전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만 짓고있는것을 본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아직 마음놓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놓이지 않는것이 아니라 난 눈을 감을수 없다.》

《왜서요?》

《그날 너의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 고기 한점을 못다 먹었단말이야!》

《왜 저가락을 가지고 먼저 집지 않았어요?》

《저가락에는 벌써 하나 집혀있었지!》

《그렇다면 왜 입에 넣지 않았어요?》

《입에도 하나 물고있었단말이야!》

《왜 넘기지 않았어요?》

《목구멍에도 아직 하나 있었단말이야!》

사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1)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조선봉건왕조시기 있은 이야기이다.

밀양 송씨문중이 사는 학당골 송생원의 상여가 나가는 날은 참으로 굉장했다. 집으로부터 선산이 있는 10여리연도에 행상군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상사소리 곡성이 한데 어울려 하늘땅을 꽉 메웠다.

맨앞에 명정을 추켜든 사람이 섰는데 긴 장대끝에 흩날리는 붉은색 비단바탕에는 주먹같은 글씨로 《학생 덕안 송희제령구》라고 씌여있었다. 《학생》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령구에 다는 이름이고 《덕안》은 그의 호였다. 편안한 덕을 지녔다는 뜻이다.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등 사방방위를 상징하는 기발들과 중, 동, 서, 남, 북 5방을 상징하는 황, 청, 백, 적, 흑의 5방대기들, 만장을 든 조객들의 행렬이 줄지어 따라섰고 그와 10여간통 떨어져서 호화스럽게 꾸민 상여가 떠갔다. 모두 거나하게 취한 여덟명의 상두군들이 상여 좌우쪽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도감의 지휘에 따라 상여를 메고갔다.

북망산이 천리라더니
지척이로구나
어호 어호 어호…

누군가 상사소리 한마디를 선창하자 일동이 그뒤를 받았다.

인생백년이 허사로다
이런 날 올줄
어이 몰랐던가
어허이야…

그때마다 상여뒤에 늘어선 상제들과 여러 조객들이 각이한 목청으로 곡을 했다.

훈훈한 봄바람에 펄럭이는 기발들, 만장들, 상여우에 벌려친 차일이 뒤말리듯 굼니는데 간단없이 울리는 징소리, 북소리가 일종의 엄숙한 느낌까지 자아냈다.

앞뒤좌우로 왔다갔다하던 도감이 뭐라 한마디하자 모든 상여군들이 급기야 그자리에 딱 멈추어섰다.

북망산길이 하도 험하고 멀어서 더는 못 가겠다는거다. 그러자 제일 맏상제인듯한 너슬너슬한 베감투를 쓰고 굵다란 새끼로 이마를 동인데다가 역시 베오라기를 둘러감은 대지팽이로 땅을 투덕이며 상여를 붙쫓던 젊은이 하나가 품속에서 엽전꿰미를 꺼내여 상두도감의 피춤에다 찔러주었다.

도감은 금시에 입이 헤작해져 목을 빼들고 소리쳤다.

《야아 거 상주인심 후허다. 자, 그만 떠나들보세.》

상여는 또다시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이젠 제발 지체하지 맙시사 비는 투로 다른 상제 하나가 상여앞에다 몇보간격으로 동전 한잎씩을 뿌렸다. 주어두었다가 후에 막걸리잔이나 사마시라는것이다. 한껏 수고한다고 내는 사례금이기도 했다.

상여는 한결 활기있게 움직이는것 같았다.

이 모든 광경을 줄곧 흥미있게 주시하며 맨뒤에서 휘적휘적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이마, 비록 량태좁은 갓이나마 뿔관자를 꿴 망건우에 올려놓은것으로 보아 행색이 과히 초라하지 않은상싶었다. 걸을 때마다 벌어지는 중치막아구탕이사이로 수실을 늘여 달아맨 쇠침이 허벅다리우에서 빈죽이는것이 유표하게 눈에 띄였다. 아마 지관인 모양이였다.

그는 당시 지관으로 이름난 정신사였다. 《신사》라는 이름은 하도 산안이 높아 존칭으로 얻은 이름이고 흔히 정도령이라고 불렀다. 나이 40이 넘도록 그는 아직 총각이였던것이다.

본향이 청주인 그는 어려서부터 지관들을 따라다니며 풍수술을 배웠다. 언제 어떻게 소문이 났던지 그가 정해주는 묘자리는 거개 다 명당으로 자손이 귀하게 되지 않은 집이 없다고 한다.

오늘 나가는 송생원의 묘자리도 그가 잡아주었다.

남달리 문벌을 높이 사고 음양오행(모든 사물현상을 음, 양의 대립적관계와 다섯가지 시원적물질의 련관관계로 설명하던 리론)의 상합상극(서로 맞고 서로 대치된다는 뜻)과 오덕시종(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다섯가지 덕의 시초와 끝)을 길흉화복의 근본주추로 여겨오던 송생원은 각 방면으로 줄을 놓아 정도령을 문객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때까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뜨내기로 떠돌아다니던 정도령도 인심 후하고 대의에 밝은 송생원을 각별히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정 곤궁하게 되면 며칠이고 사랑방에 와 묻혀살며 그의 말벗이 되여 밤을 새운적도 많았다.

송생원은 역시 저대로 이것을 고맙게 여겼다.

우에서도 잠간 비쳤거니와 송생원은 특별히 문벌을 귀하게 여겼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기사환국》(숙종 15년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파간에 벌어진 당쟁)에 의하여 화를 당한 송시렬의 7대손으로 비록 벼슬은 안했지만 조상의 반연을 이어받아 학식있고 고을에서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였다.

특히 송생원은 효성심이 남달랐다.

그는 대대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선산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부친이 돌아갔을 때에는 려묘살이를 3년간하고 몸이 쇠하여 거의 죽게 된것을 온 일가문중이 떨쳐나구완하여 겨우 살아났다. 이렇게 3년상을 마치고도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부모제사를 번지는 때가 없었다. 돌제, 생일제, 명절제를 비롯해서 한해에도 몇번씩 오는 제사를 그는 매양 각근히 받들었다.

금수강산 춘사해
앵화항맥 일중천…

금수강산 사방에 봄이라
꽃핀 거리엔 꾀꼬리노래
해는 중천에 떴구나

라는 노래에도 있듯이 이때는 왕이 하도 무능하여 아무런 정사도 하지 않은 덕에 시절이 참으로 《태평》했다. 상기 시구는 매일 한가롭게 흘러가는 당시 정계를 풍자하여 어느 누가 지어 돌린 노래이다.

이에 따라 풍속도 자연 해이해지고 문란해져서 조상전래의 모든 미풍량속이 날로 그 면모를 상실해가고있었다.

이런 때에 송생원이 선영(조상의 무덤)을 고수하고 가례(집안의 례법)를 그처럼 엄격히 지켜냈으니 그가 일가친척들과 뭇사람들로부터 존대를 받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했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